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7 5월호

아브라함 가정이 복받은 비결

(성경 / 창세기 22: 1-9)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성경 역사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아니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의 찬송이 넘쳐흐르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마음이 담대하고 몸이 건강한 가정이었고 집에서 파수하는 사병(私兵)이 318명이나 되는 큰 부자로 재산은 셀 수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창22: 17) 창성한 자손을 갖게 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같이 복을 받아 누린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는 아내로서 남편을 주(主)라고 부르면서까지 순종하였고, 이삭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함은 완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감사함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벗이라고까지 일컫음을 입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떠나는 일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남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습을 끊어버렸고, 친척을 떠남으로 인정을 정리하여 당파를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불의한 사업을 정리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술·담배·우상숭배·도박 등을 회개·청산하는 일은 지극히 힘든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손해가는 불의한 사업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식구들이 되었다

사라는 아내로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정도로 남편을 공경하며 의지하고, 수고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며 순종하였고, 이삭은 아들로써 아브라함의 명령을 죽음에 이르는 제물이 되는 일까지 순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자식은 부모를 믿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청렴결백한 가정

창세기 14장 18절 이하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나오면서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준 일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소돔왕에게 인정을 받은 물질에 청렴결백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던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3일 먼 길을 걸어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길을 가는 그 순종, 아브라함의 가정은 헌신을 죽기까지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랄 수 없던 가운데 얻은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대(가게)가 끊어졌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어디서 누구와 만나도 한 번도 저 본 일이 없을 정도로 늘 승리하는 생애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아브라함 품안에 있는 놀라운 지위, 즉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지극히 부요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지니 그의 마음·몸·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자의 거룩한 축복을 깊이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여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신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의 가정 식구들이 말은바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순종하는 귀한 자녀가 모두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5월의 행사

- 1일/어린이주일 · 제직회 · 재정위원회 · 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 · 남전도회임원회
- 7일/경로회
- 8일/아버지주일 · 남전도회월례회 · 권사회월례회 · 대학부헌신예배
- 9일/13일/심령부흥회
- 15일/여전도회월례회 · 재정위원회 · 해외선교회실행위원회 · 건축위원회
- 16일/교육위원회
- 17일/장로장립식(김영삼 집사)
- 22일/월간충현 5월호 발행 · 전도위원회 · 고등부원신예배 · 구역권찰회
- 29일/해외선교회월례회 및 헌신예배

4월호 차례

- 〈말씀〉 아브라함 가정이 복받은 비결
/김창인 목사.....2
- 〈권두언〉 청소년 선도의 과제4
- 〈이달의 글〉 아름다운 정성5
- 《특집좌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6
- 충현주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 〈인터뷰〉 당회장이 들려주는 이야기/편집부.....14
- 〈찬송가해설〉 날마다 주와 버성겨15
- 〈1200자 칼럼〉 계획이란/고재원15
- 〈순교사화⑦〉 17호 피수—이기풍 목사(하)
/이사례 권사.....16
- 〈이단종교비판④〉 물문교/윤형철 전도사.....17
- 〈직분론①〉 직분의 뜻과 직분자의 자격
/정상우 목사.....13
- 〈청년 신앙에세이〉 만남의 생활/성주진18
- 〈청년 신앙논단〉 놀이 놀라 외치자/윤봉준.....19
- 〈책소개〉 성결의 비밀/안영자.....20
- 〈도서정보〉20
- 〈구역장노우트⑥〉 신앙지도의 지침(8)
/백성룡 목사.....21
- 〈구역소식〉21
- 〈뉴우스〉22
- 〈성전건축을 앞두고〉 당회장 말씀24
- 〈이달에 만난 사람〉 새로 부임한 비분교역자.....25
- 〈기자석 · 편집후기 · 표지설명〉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 〈실로암 못가에서〉28

월간 충현

김 창 인 목 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청소년 선도의 과제

오월은 푸르른 싉의 계절이요 젊음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또 이 달은 청소년 선도의 달이요 가정의 달로도 지키는 의의가 있는 달이라 하겠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청소년 선도의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 인구의 36%가 청소년으로 약 1천만명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이다. 그와 같은 청소년들 중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39.8%이고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은 60.2%로서 어떤 조사에 나타난 것이 있다. 또 E대학에서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현 고등학생들 중에서 25% 정도가 이성간의 성관계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인 8%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범죄추세가 어떠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5월이 오면 습관적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국가 사회에서 실시한다. 그 행사의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주동이 되어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는데, 한국 경찰이 그러한 일까지 할 수 있으리 만큼 인원이나 재력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쉬운 것은 지역사회 문화의 심장역할을 담당한 교회들의 참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한다.

세계 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대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덴마크에서는 미래의 국민을 의식하도록 청소년단체 총협회를 구성하여 정부에서는 의식적으로 청소년 운동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덴마크를 이루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도 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처진 감이 있는 듯하다. 결코 교회가 청소년 교육이나 선도에 대한 관심도가 정부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희박해져서는 안된다.

변모하는 사회 속의 청소년은 고민하지 않고 즐겁게 해주면서 자아를 발견토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무서운 범죄상황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인격적 존재로 키워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키워져야 한다.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마치 부모의 소유물이나 어른들의 이용도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둘째,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력이 있을 수 없고 참신한 성장도 있을 수 없다. 창의성이나 자제력이 없는 국민이나 국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문화나 훌륭한 문명을 창조해 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은 제도나 권위 속에서 강압적인 놀림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명령 하에 통제되는 가정·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발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다. 셋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불신(不信)이라고 할 것이다. 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래로 인간된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회 속에서 건전한 미래의 국민을 키울 수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동결된 무제한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을 동원하여 정신적 갈등과 고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상담소를 제공하여 영혼이 굶주려 배고파하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하루가 시급하다. 오늘날까지 산적되어 온 이 엄청난 과제를 하루의 강연이나 한 달 동안 외친 구호로만 뉘 수 없고, 교회는 차원을 달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좀더 적극적인 선교와 선도의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 간>

아름다운 정성

어린 존(John)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교회의 첼버스 목사님은, 「교회의 건물이 아주 낡았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정성에 호소해서 연보를 청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이라야 할 것은 없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두터운 존은 연보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으나 그 몸으로 도저히 어떠한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제저래 궁리한 끝에 아버지에게 청하여 벽돌을 한 화차 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벽돌? ...너는 벽돌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버지, 저는 교회에 연보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이 아니고 물건이라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 잘 믿는 아버지는 존의 아름다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 이튿날 새벽이었다. 어제 밤부터 설 없이 쏟아지는 함박눈이 펄펄 날리고 있었다. 연보를 하게 된 기쁨에 한잠도 자지 못한 존은 온몸에 눈을 맞으면서 추운 아침부터 벽돌을 화차에 쌓기 시작했다.

이 소리에 눈을 뜨신 어머니는 놀라시며, 「존! 날도 밝지 않고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교회에 가는 것이냐? 이렇게 빨리 지금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러다가 감기라도 들면 어쩔라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존은 수레를 끌고 교회에까지 왔다. 존은 예배당 옆에 있는 목사님 집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목사님, 저예요. 이렇게 일찌기 와서 미안합니다.」

「아, 너 존이 아니냐?」

추운 새벽인데도 외투도 못 입고 헤어진 저고리를 걸치고 나타난 존의 모습.

「웬 일이냐? 이렇게 일찍 무슨 볼 일이 있어 왔느냐? 응, 너 그런 모양으로 춥지 않느냐?」

너무도 이상하여 물으셨다.

「폐찮습니다. 목사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에 연보를 하려고 왔습니다.」

「뭐? 연보?」

「예, 저의 집은 가난하여 돈이 없습니다. 저는 돈으로는 연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벽돌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도 받아 주시죠?」

존의 목소리를 들은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다. 존의 손목을 잡으신 목사님은,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거야. 훌륭한 연보다. 오냐, 벽돌로 연보할 수 있구말구. 훌륭한 연보지... 이 추운 날엔 너는 새벽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목사님,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 일이 다시 없겠습니다.」

「오냐, 그렇겠지! 나는 100만원의 연보를 받은 것보다 너의 벽돌이 더 귀중한 것으로 안다. 존아,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만 지키고 나갈 것 같으면 기어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뒤, 가난한 소년이 벽돌을 교회에 연보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연보를 귀찮게 여기던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새로 지을 돈이 나오기도 남았다.

존의 일에 깊이 감동된 목사님은 존을 자기 집에서 저녁마다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 목사님이 가교정사가 되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 최효집 쓴 「존 워너메이커」중에서 뽑은 글. 워너메이커(Wanamaker, John 1838~1922)씨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로 백화점왕이며 주일학교 활동가였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충현주교 각부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
장 19절-20절

- ...영혼구원·성경교수·생활지도는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과정이...
-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일학교 각부의 지도교...
- ...역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대화를 나누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 ...였다, 처음 계획은 월간 충현 3월호와 4월호에 실린 주일학교 발전을...
- ...위한 기획연재의 주제인 「주일학교 교육목적」에 대하여 생각하려 했으나...
- ...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그 범위가 보다 넓어져 원래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
- ...느낌이 있다. 그러나 각부 교사들이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전체적으...
- ...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편집자>...

사회자→오늘 이처럼 자리를 마련한 것은 「주교 각부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대하여 일선에서 각부의 교육지도를 맡고 계신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천국일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같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주교 교사들과 평신도들이 주교 교육을 보다 넓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아부 지도를 맡고 계신 정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지도에 역점 두고

정소영→영아부의 교육목표라면 역시 우리교회 교육목표인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히 「신앙을 생활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4세 미만의 아기들이 만큼 영아들을 지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

》와 담 회《

- 주제/충현주교 각부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 일시/1977년 5월 2일(월) 오후
- 장소/월간 충현 편집실
- 참석자/김재창 목사(노년부 지도) 김태현 강도사(초등부 지도) 이승근 전도사(고등부 지도) 윤형철 전도사(유년부 지도) 김영희 전도사(유년부 지도) 김수성 전도사(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정소영 전도사(영아부 지도) 정연희 전도사(유치부 지도) 김경성 전도사(대학부 부지도) 김순애 전도사(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 사회/정은표 집사(월간 충현 간사)

한 영아들을 위한 음악교재·운동교재 등이 처음에는 전혀 없어 상당히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습진행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장소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름도 아닌 요즘도 담이 땀 뻘 흘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김수성→제가 맡고 있는 산업전도교육부는 작년에 시작된 신생부입니다. 1977년 교육목표를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교회생활과 개인신앙생활에 익숙지 못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생활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어려운 역경과 고난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물 이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이라는 특별한 입장 때문에 어려움도 많습니니다. 먼저 교재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중등부 공과를 사용했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음은 출석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학생이지만 사회에서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처럼 매주 자유롭게 출석할 수 없는 형편이며, 주일의 다른 날 행사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시간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판단력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아직 성숙지 못한 이들의 생존을 위한 직장생활은 그들에게 힘겨운 것이며 정서적인 결핍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상담과 심방에 충분히 응할 수가 없는 점입니다.

교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문제

정연희→충현교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잘

한다는 평등을 합니다. 얼마전 주교 강습회에서 만난 장로님 한분에게 제가 물기를 “장로님이 시무하시는 교회가 과거에는 우리교회 보다 주교교육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뒤져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현교회 장로님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교회 장로님들의 교육에 대한 길은 관심과 이해에 공경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같은 우리교회 유치부를 맡고 있는 저의 기억에는 이제까지 교육을 하면서 유치부원이 더 이상 확장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양적인 면에 한번도 치중해 보지 못했지요(모두 웃음). 그러나 작년에 지방교회를 견학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800명씩에 하음소서, 1,000명씩에 하음소서 등으로 양적인 부흥에 목표를 두고 있더군요. 유치부 교육이 지·정·의를 갖춘 전인적인 교육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회당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성경내용을 그대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려 애쓰지요. 성경 이외의 예화도 가급적 줄이고 찬송도 새 찬송가에서 한달에 한가지씩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적인 면에 치중하다 보니 올해도 「지혜롭게 키우자」는 교육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역시 장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과거 교회들이 전축할 때에 어린이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교회를 새로 지을 때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 장소도 좀 여유가 있고 시설도 잘 갖추어진 교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사회자→모두들 주교 교육장소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지요. 그럴 다음에는 김 강도사님께서 초등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김태현→일반적으로 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 이것에 교육목표를 두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교 교육에 있어서 전인교육이란 일반 사회교육에서 말하는 전인교육과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주교교육에 있어서 전인교육은 영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신앙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분명한 말씀 전달

초등부에서는 「예수님처럼 자라자」라는 목표아래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아부나 유치부처럼 “키우자”라고 하지 않고 “자라자”라고 한 것은 초등부쯤 되면 서서히 자기를 알게 하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뜻에서죠. 이를 위해 특히 올바른 가치관달을 할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즉 교사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분명하게 표시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따라라겠죠.

학습진행에 있어 문제라면 저희도 역시 장소문제라

고 말하고 싶군요. 한 심령이 복음을 듣고 완전한 회심을 하기까지는 교사가 학생과 일대일로 접촉하여 손이라도 마주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환경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장소 때문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보며 우리가 바라는 천국 일꾼 양성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교사는 일단 설정된 각부의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보다 더 합심하여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노년부 교육은 적절한 착안

김재창→저는 노년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노년부는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 최고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졸업장을 드리는 부(部)이니지요(다같이 웃음). 모두 만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현재 94세 되신 분이 매주일 나오십니다. 이처럼 모두가 고령이지만 이분들이 노년부 시간을 얼마나 흥미롭게 지내는지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올해로 노년부를 시작한지 4년째 되고 있는데 우리 당회장 김목사님의 노년부 교육에 대한 착안을 가장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일꾼을 키운다」고 할 때는 전반적인 의미가 있지요. 훈련과정은 어느 부(部)나 다 있게 마련이지만 노년부에 있어 훈련과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에게는 하늘 합격자가 되는 자격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신앙생활과 남은 생을 믿는 자답게 어떻게 정리하여야 되겠느냐 그런 면에 착안을 두고 교육하고 있지요. 성경공부 시간과 성도의 교제시간이 있는데 노년부 학생들에게 성도의 교제시간은 대단히 흥미있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자가 없어 외롭게 혹은 지루하게 한 주일을 지내다가 교회에 나와서 대화가 통하는 자기와 연갑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 격려하며 웃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시간에 서로 마주 앉아 다과라도 나눌 때면 대개 너그럽게 양보하여 자리를 좁혀 함께 앉지만 혹 어떤 분은 아주 고집통이라 자기 자리는 아무한테도 양보를 안합니다. 이처럼 노년부도 역시 장소가 좁아 애를 먹고 있지요.

노년부의 자람이라고 하면, 교사 여러분이 합심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또는 물질로 자진해서 노인들이 즐거운 성도의





<김 태 현>

<김 재 항>

교계를 나눌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소영→영아부도 잘합니다.

김재항→영아부도 잘해요? 네, 그런 부(部)가 많아 질수록 좋지요.

사회자→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일 학교 노년부가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일은 모든 교회들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등부에 대해서 이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승근→교회사적으로 볼 때 각 시대마다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 즉, 중세시대를 교회 조직시대라고 한다면 현시대를 선교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리어 오히려 신학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는 구미(歐美) 자국보다는 우리나라에 적절한 말이라고 봅니다. 구미에서는 황혼기에 접어들어 선교활동이 우리 한국에서는 불이 붙기 시작하였고 선교시대라는 시대적 사명감과 함께 그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교교육도 선교시대에 발맞추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현교회 고등부도 이같은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우리는 선교시대에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또 선교의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대로 우리교회의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목표에 맞추어 우리 스스로 천국 일꾼이 되자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그저 「천국일꾼이 되자」는 말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일꾼이 되는데 선교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천국일꾼이 되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부 표어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충만에 「오직」이라고 강조한 것은 학생들도 학교 공부나 세상의 많은 일보다도 초대 교인들 처럼 모든 일에 앞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같은 요청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을 그들과의 대화에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학생들의 신앙 의식구조가 관념적인데 머물러 있는 점이었습니니다. 즉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든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격에 부딪혀지고 생활에 나타나는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먼저 신자가 되고 다음에……

학생들에게 선교시대에 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실제화되기 위하여는 이같은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do」보다 항상 「to be」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to be」, 즉 먼저 신자가 되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한 선교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to do」, 즉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도생활을 하게 하였고 또 응답 받은 것을 간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지 않고, 다만 다소 무리를 하면서도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부모님이 믿는 예수가 곧 자신이 믿는 예수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전에는 전혀 판단할 수 없었던 일상생활의 문제가 암기한 성경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들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정말 호뭇했습니다.

학생·부모의 주교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학생 가운데는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 즉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진학을 앞둔 상급학년 일수록 더한데 그들 머리 속에는 진학문제만 꼭 들어차 있을 뿐, 진학문제 역시 신앙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학원에 가야 되느냐 망설이며 고민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우리교회 재직의 자녀 중에 그러한 학생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능위주의 사회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할 부모들이 방임 내지는 동조적인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회에 나오는것을 하나의 악제사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에 속한 문제는 본업이고 결코 부업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곤 합니다만 이것은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그릇된 결과이며 먼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부모의 의견은 대학 입학 후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모의 자녀치고 실사 목적대로 일류 대학에 입학해도 약속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더 좋은 여건과 기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언제나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좌우되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 모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부업이 잘되면 다음에 주업에 봉사하자는 방식의 너무나도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앙양심과 세속적인 생활의 틈바구니에서 빗어지는 내적 갈등에서 헤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네, 크리스찬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문제는

주교교육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다. 성도의 일상생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년부의 김전도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희→제가 유년부 지도를 맡게 된 것은 불과 일년도 안됩니다. 그래서 유년부 어린이 교육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하여 주셨는데 저는 기독교교육이 「생명을 얻고」 「종성히 자라게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인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조건에서는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사 장소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기독교교육은 세상 교육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일에 모든 수단·방법·지식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들도 주교교육에 관심을 두고 어린이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습관을 붙여주거나 성경을 읽어주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교교육에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심방을 해본 결과 이러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단지 주일날 15분 정도의 설교와 15분 정도의 공과 공부가 그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끼리 말씀대로 생활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교육의 생명은 더 무겁고 이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와 교사들은 늘 스스로를 돌아 보게 됩니다.

유년부는 올해 목표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자가 되라」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구주에 대한 은혜 즉 생명을 얻는 일과 다음은 저를 아는 지식이 자라 성경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역점을 두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교교육에 대한 가정의 협조가 필요

이를 위하여는 교역자와 교사가 하나가 되어야겠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뜨거운 체험과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먼저 앞서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주교교육은 가정과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정말 효과 있는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는 유년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더 절실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교 전체에 대한 장래요소입니다만 요즘 도시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단체인데 자꾸 제도화되고 심지어는 사회의 기관과 같이 어떤 기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의 효율을 생각할 때는 교회도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제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의 제도가 비판 없이 그대로 제도화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교회처럼 큰 교회일수록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겠는데 주일학교 전체 목표에 제도화라는 어떤 안일함과 타성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임기응변적으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모든 행사가 이제는 옛날의 방법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자주 발전해 가는데 교회교육은 옛날과 별로 다름이 없이 답습 내지는 퇴보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면에 좀더 생각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다음은 우리교회 오신지는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김전도사님 나름대로 그간 주교교육을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직업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김순애→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산업전도교육부의 상황조차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로 오기 전까지 생산기업체의 기숙사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1년 8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 시급히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행히도 지난 해부터 우리교회에 산업전도회가 발족되고 산업전도교육부가 생겨 늦게라도 교회가 이들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 상담을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맡은 일인 자기기업의 작업장을 찾아다니며 전도도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작입니다.

직업청소년들에 대한 주교의 책임

사회자→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주교 산업전도교육부는 우리교회가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것으로서 교육대상이 상당히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대학부 부지도로 수교하시는 김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대학부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김경성→제가 대학생들에 대해 느낀 것은 그들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공부한다는 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대학부 부지도로 일을 한 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을지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학부가 작년까지는 학생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적인 개인신앙을 무장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와 교재 문제는 큰 난제

저는 여기서 대학부 교육에 있어 현안문제점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느낀 것은 아직까지도 대학생들을 위한 교과와 교재가 마련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정과 지도자에 따라 변경



<이 흥 근>

<윤 형 철>



<정 소 영>

<김 경 성>

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학부 교육에 있어 큰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방법 문제인데 이제까지는 주입식 교육방법이 그런대로 가능했는데 일반대학교육의 제도와 방법이 과거와 너무나도 크게 변환된 현재 대학생들에게는 이 주입식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학생 정도가 되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신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입식방법으로만 교육을 받아 오다가 스스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할 요구를 받게 되는 대학생이 되면 회의에 빠지고 오히려 신앙의 백지상태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요각부 교육이 상호연관되어야

그래서 원만한 대학부 교육이 되려면 고등부 때부터 교육방법을 대학부 교육방법과 연관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생이 되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생활환경, 생활양식이 바뀌어도 거기서 당황하고 방황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분명히 알고 대답할 수 있는 대학부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이 되어서 심각할 만큼 큰 혼란기를 겪지 않아도 되겠고 또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형철→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장소문제가 우리 교회 주요 교육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장소계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도리어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급 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 모든 여건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어졌다고 하면 외적인 것에 굉장한 신경들을 썼을텐데 장소가 한정되니까 돌파구는 자연히 질적 향상이라는 면에 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육내용이 참 인간상이다. 신앙 인격이다 라는 등으로 가치가 있어지고 무게가 있어지고 깊어지고 말씀에 치중하게 된 것 같아요.

지도자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문제는 장소보다도 지도자에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문제의식은 대중이 느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지도자들의 역부족으로 이러한 토의가 있으면 문제의식은 잔뜩 늘어놓는데 해결방안은 없지요. 그리고 해결안을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이 되지 못하고 이상만 쫓 늘어놓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전은 하나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 중등부의 교육목표는 역시 참 인간을 키운다는 것으로 질적인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

회 교육목표가 「천국일꾼을 키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국일꾼이라는 구체적인 인간상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까 이 전도사님과 김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며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 키우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하여 먼저 「말씀을 읽고 거하고 행하자」 그래서 내적 기초작업을 하고 다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그래서 자기 신앙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하며 끝으로 자기 신앙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 즉 봉사활동·전도활동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부에서는 그룹활동을 권장하여 마음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하여 신앙의 동지들을 자주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보아도 지금 학교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거의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니까 친구라고 생각했었지만 졸업 후에 세상이 달라지니까 전부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별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친구처럼 여겼던 친구라도 실든 좋은 끝까지 남아 있는 친구는 교회 친구밖에 없어요. 또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그룹별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며 발표도 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직은 봉사가 아니다

중등부의 문제라고 하면 아까 고등부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가연습만 한다고 해도 학교공부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도 학교공부를 크게 생각하고 또 교회와는 별개로 생각하죠.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에게도 있어요.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사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신의 교사직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고 파소평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는 일하는 것을 하나의 봉사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에게 있어 봉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남을 위해 해주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말처럼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부 교사님들에게 「봉사」라는 말 대신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충성」으로 일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강조하며 늘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중등부에 격적은 없다」. 충성하는 교사를 구경할 수 있는 교사는 하나도 없으며 또 그럴 자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본을보이며 가르치는 교사되어야

또 한가는 우리교회에 가르치는 교사는 400여명이나 되어도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교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에는 그때도 교사 중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저 사람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기도 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커감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는 붙어나지만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격과 실력을 갖춘 교사, 학생들의 본이 되는 교사가 많이 나와야겠다는 것이 주교 전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중등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소영→중등부나 고등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과 생활의 일치를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는 영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지만 현재 영아부에서는 믿는 바를 생활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9절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아에게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금의 영아부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아마 지금과 같은 문제는 훨씬 적어지리라 믿습니다.

윤형철→할렐루야! 20년 후에 중현교회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회자→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주교 각부는 각부의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교육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일꾼』인가?

우리 교회 주교교육에 있어 우리가 항상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천국일꾼』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각부가 체계적으로 연결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줄 믿는데 하나의 추상적인 용어이기 는 하지만 우리교회 주일학교 각부가 통일된 『천국 일꾼』이라는 개념을 향해 진행함으로써 이같은 연결이 지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승근→저는 한가지 예화로써 『천국 일꾼』의 뜻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브룩스(P. Brooks)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 목사님 앞으로 하루에도 수통씩의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는 물론 목사님의 음성과 모습까지도 모두 마음에 듭니다”라는 식으로 감사와 격찬을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편지 가운데 그 목사님은 단 하나만을 목사님의 책상머리에 꽂아 두고 읽고 또 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웃 마을의 할머니가 보낸 편지인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집 식구중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동네에는 내가 아끼는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들중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 말씀과 위대한 인격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을 그리다 보면 어느덧 목사님의 설교가 연상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연상하다 보면 또 다시 예수님이 연상되어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목사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그렇게 훌륭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매개체가 바로 천국일꾼

이러한 내용의 편지로 받은 브룩스 목사님은 “그렇다, 내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은 나를 교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천국일꾼』이라는 것도 바로 이 목사님처럼 예수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성→흔히 신앙의 체험이 깊어지고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이 신학공부를 하여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길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일꾼』이 목사나 전도사처럼 교회만 일할 곳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특히 제가 지도하고 있는 산업전도교육부 학생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생활과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일꾼』이고 그 『천국일꾼』이 일하는 일터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라고 할 때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로 삼는 일」 「가르치는 일」 「순종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일꾼』이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생각합니다.

김영휘→저는 현재 이 땅위에서 천국을 살도록 하는 사람을 『천국일꾼』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일꾼』이 되려면 먼저 구별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실제생활에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국일꾼』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김태현→대학 입학시험 때마다 유난히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의 요청이나 시대적 방향에



◀김영휘▶

◀김수성▶



<김 순 애>



<정 연 회>



<정 은 표>

따라 자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일꾼」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즉 이 땅위의 천국 확장을 위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죠. 과거에는 국내 전도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사명감만 불타면 「천국일꾼」으로 합격자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철저한 신앙의 바탕이 있고 불타는 사명감이 있다 해도 외국어에 능하지 못하면 해외 선교를 위한 「천국일꾼」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천국일꾼」이란 철저한 신앙의 무장과 함께 그 시대에 적절한 기능도 또한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선교활동을 하려는 우리 중현교회로서는 이와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천국일꾼」을 키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소영→저는 아까 말씀하신 김수성 전도사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꼭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야만 「천국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이 곧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생활을 통해 보이는 사람이 곧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형→저는 「천국일꾼」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일꾼이란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지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도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으나 그 가운데서 열둘만을 택한것은 그 열둘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천국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나—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김경성→첫째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대하여 긍지를 가진 자, 둘째 남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자각과 함께 그대로 살 수 있는 참 용기를 가진 자, 이러한 사람이 「천국일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애→처음 저는 중현교회에 와서 「천국일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목회자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모두 지체라고 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 그 위치에서 청지기로서의 자각과 함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천국일꾼』 키우려면 먼저 『천국일꾼』되어야

김재창→「천국일꾼」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나 개념 설명은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말씀 하셔야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요즘 당회장 목사님이 「천국일꾼」을 말씀하실 때 그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천국일꾼을 키우자」고 하여 「키우자」는 데 강조하셨으나 요즘은 우리들 자신이 「천국일꾼이 되자」고 하여 「되자」는 데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천국일꾼」으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되겠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일꾼」이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천국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인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곤 합니다.

따라서 천국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회를 통해 천국사업에 얼마나 이바지 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겠고 주님의 뜻을 이 땅위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를 위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곧 「천국일꾼」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사회자→「천국일꾼」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교회 주일학교 전체의 교육목표가 개략적으로나마 정리되었다고 보며 또한 각부 교육목표와 연관시켜 볼 때 각부가 주일학교 전체 교육목표 내지는 교회의 목표에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겠느냐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와 같은 대화의 기회가 자주있기를 바라며 오랜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중현교회 주일학교 교사수·학생수 통계표

구 분		새신자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산전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합 계
		어린이	장년												
재 적	교사	25	14	22	33	71	69	46	46	11	23	5	30	17	412
	학생	52	62	129	185	421	482	480	592	82	190	162	352	103	3,292

* 1977년 4월 24일 현재

직분의 뜻과 직분자의 자격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충성을 하되 충성...
☐...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의의와 그 가치 그 위치를 알고 한다면 많은 경우와 사람에게, 유...
☐...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충성하는 바른 길잡이가...
☐...될 것을 바란다. <편집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피로 세우신(행 20:28)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가지 직분을 주셨다(고전 12:20-31; 엡 4:11; 롬 12:4-8).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고, 오늘에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하며(롬 11:13), 오늘에 내가 받은 직분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전 4:2).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의 부흥이 있으며 성도생활에 축복이 있다. 그럴 이 직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자.

1. 직분의 뜻

신약성경에 보면 「직분」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롬 11:13; 고후 3:7; 골 4:17; 딤후 1:12; 행 1:20; 딤후 3:1, 13; 히 8:6; 눅 16:2, 3; 고후 9:17; 롬 12:4). 헬라어로는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 디아코니아, 에피스코페, 테이투르기아, 바두온, 오이코노미안, 프라에인 등으로 쓰여져 있다. 이상의 단어는 「직분」이란 뜻 외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뜻은 「봉사」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직분」이란 말외에도 「봉사」 「섬기는 일」로 번역되어 있다(행 21:19; 고전 16:15; 고후 11:8; 엡 4:12; 히 1:14; 계 2:19; 히 9:21; 빌 2:30). 그리고 한글사전에 「직분」이란 낱말의 뜻을 「마땅히 해야 할 본분(duty)」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므로 「직분」이라 할 때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직위(목사·장로·집사·권찰·교사 등)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봉사」의 사명이란 말할 수 있다.

2. 직분자의 기본적인 자격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한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없으며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없다. 직분을 맡으려면, 즉 교회를 바로 섬기려면,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디모데전서 1장 12-15절에서 간추려 보자.

(1) 긍휼을 입은 자이어야 한다.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창 34:6) 원뜻은 「사람의 불행에 회개시켜 주려는 고통스런 심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기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뜻한다. 즉 「구원받은 자」를 가리킨다.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

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에서 된 것이다(요일 4:19). 그러므로 직분자의 자격요건의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여야 한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라야 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2) 말감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가지 직무와 이에 따르는 은사를 주신다(마 25:15; 롬 12:4-8; 고전 12:20-31 등). 그러므로 직분은 좁은 의미에서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직분자는 말감받은 자로서 청지기(司事)의(벧전 4:10)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3) 감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내가 감사함은」 원문에는 이 구(句)가 12절 선두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감사(원어: 카린 예코)는 「내가 기쁨을 가진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 말로서 보통 감사한다는 말보다도 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욱 직분까지 맡겨주신 은총을 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4) 충성심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는 내 자신이 충성스럽다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하지 못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충성되다고 인정하여 주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것이 은총이며 또한 이 은총을 깨달은 자가 겸손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눅 17:10; 고전 4:2). 그러므로 직분자는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주실 수 있도록 겸손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5) 능하게 된 자이어야 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속 4:6; 행 1:8). 그러므로 직분자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고전 12:31) 성령님의 은혜로써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빌 4:12) 또 실제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엡 5:18).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음호 계속>

해외 여행길 앞두고

당회장이 들려주는 이야기

안식년의 일환으로 100일간의 휴가를 이용,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근일 출국한다. 북한선교회 및 해외선교의 슬한 과제를 안고 해외여행길에 오르는 당회장을, 조선군 집사가 잠깐 만나 대답해 본 내용을 여기 간추려 실는다.

<편집부>

조—목사님, 작년 목사님의 해외여행은 꽤 성과가 컸던 것으로 보아 금년에도 얻어지는 바가 클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출국하시게 됩니까?

당회장—지금 형편으로는 며칠 지연될 듯도 하다. 그러나 스웨덴에서의 대회가 6월 16일이니, 늦어도 6월 12, 13일경에는 출발해야 되겠다.



◇ 다음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일을 찬찬히 이야기하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

조—이번 해외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언제 어느 나라를 둘러 어떤 일을 하시게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회장—지금 계획으로는 스웨덴·노르웨이·서독· 스위스·이집트·홍콩·미국·캐나다를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세워져 있지는 않다. 전에 보면 예상 밖의 일 때문에 처음의 일정이 다소 수정되는 때도 있었다. 좀 이상히 들릴는지 모르나, 계획이 없는 가운데 계획이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곤 했다. 서독에 한국선교관 건립 여부 타진, 부흥회 인도 등을 일정에 넣고 있다.

조—3개월여의 여행목적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로 해외선교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회장—여행목적이라 할까 이런 욕심이 있다. 첫째 외국에 나가 견문(見聞)을 넓혀 많은 것을 종합, 연구·검토하여 복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싶다. 둘째 해외 선교사업의 발전시키기 위해 보수제통의 여러 선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형식으로 유대관계를 가질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세계는 일꾼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다. 천국일꾼 육성하는 일을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보내어 더 많이 배우며 훈련받아 더 크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싶다. 일꾼을 양성하는 기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구상 중인데……

조—지난 월말에 창립을 본, 그리고 그 단체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북한선교회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실 계획이며, 이번 여행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당회장—침부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에 대해 선교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다. 사실은 몇해 전부터 암암리에 활동해 온 새약선교회가 정체를 뚜렷이 나타낸

단체가 곧 북한선교회다. 어떤 사람들은 혹 신변 위험 등 염려를 하는데 설명 일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좋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 있다. 현재 북한선교회는 5대사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첫째 귀순용사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요즘은 귀순용사 200여명과 그들의 가족을 합해 500여명 정도 초청하는 일로 부산하다. 둘째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동포에게 방송 전도하는 일이다. 한 주일에 5일간씩 하기로 극동방송과 이미 계약

을 해두었다. 셋째 해외에 있는 북한동포에게 직접 전도하는 일이다. 제3국의 외교통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 동포에게 성경을 보내주는 일이다. 벌써 한글성경 5,000부를 제3국을 통해 만들어 놓았다. 강단에서 말했듯이 성경을 특수하게 제작하여 관광객 혹은 제3국의 공관원들을 통해 그야말로 비상 수단을 써서 전해 보겠다. 다섯째 문서를 통한 선교운동을 펴겠다. 전도용 팸플렛,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정보, 귀순용사들의 수기(手記) 등을 간행하여 이것 역시 비상 통로를 적용해 볼 생각이다.

조—매스컴을 통해, 목사님이 아세아복음선교회 총재로 또는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한국연맹의 고문으로 추대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와같은 대외활동과 우리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회장—총회교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을 따름이다.

조—그럼 끝으로, 해외선교를 더욱 힘있게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해 가기 위하여 해외의 총현식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등 특별히 의도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해외 곳곳에 지부(支部)라도 두고 선교정책을 펴나가야 활발해지겠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대다수 총현식구들과 편지·주보·월간총현 등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 중 몇분은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러모로 연구해 보는 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해외선교사업의 성공을 위해 은 교우가 더욱 힘과 정성을 모아야겠다.

조—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

날마다 주와 버성겨

(Mother's Prayers Have followed Me)

(세 281: 개 531; 합 257)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님 기도 뜻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님 기도 뜻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경으로 한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의 능력은 방탕한 길로 가던 자식의 마음을 돌아침을 찾아본다. 이 찬송의 작시자 리지 더 아몬드(Mrs. Lizzie De Armond) 여사는 「십자가의 여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삶을 산 사람으로 1861년 펜실바니아주의 스와트모에서 태어나 그곳에 장로교가 생길 때부터 초등부의 충실한 교사로 늙어 집에서 교회까지 왕래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스와트모에서 목사였던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8남매의 무거운 짐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크리스찬 신앙의 밝은 빛은 그의 딸이 병중에서 몹시 신음하고 있을 때처럼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밝게 빛난 적이 없었다. 이때는 질병과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은 생명이 죽어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믿는다는 사람조차 입을 다물고 속수무책이었고 어떤 이는 이 재난이 하나님의 저주인양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더 아몬드 여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에 정면으로 도전이라도 하는 듯이 “만약 내가 여기서 ‘굴 노일’ 인사를 한다면 저 천국에서는 누군가 ‘굴 모님’ 인사를 하겠지—”라고 대답한 말을 하여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과 같이 사는 시간이 앞당겨질 뿐이라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선천적인 음악적 재능과 아름다운 음성은 많은 교회와 초청을 받기도 했으며, 부양의 책임이 어깨에 놓이게 되자 8세 때 다니이라는 필명으로 출판용 글을 썼던 것을 되살려 전국주일학교에서 사용될 찬송과 낭독시 특별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다. 1957년 81세의 생일을 축하하던 그의 딸 린다 씨는 어머니에 관하여 이 어머니의 일생은 항상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고 생존경쟁의 최전선에 선 투사였으나 언제나 유쾌하고 행복하였다. 어머니는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시며 생활비를 버시기 위하여 닦치는 대로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고된 생활의 결실이 찬송이었다”고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 즉 「무릎의 능력」이 뒤에서 역사할 때 외로운 곳에서 육적 열적 병이 들었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새 힘을 주시듯 찬양한 이 찬송은 1912년 애클리(B.D. Ackley)가 작곡하였다. 그녀가 세상을 마칠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시대로 승리의자의 휴식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굴의 신앙으로 승리 했기 때문이다.

1.200.21. 찬송

계획이란!

고 제 원

문화가 발달해 감에 따라,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또 계획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은 하나의 질서를 뜻하기도 한다.

원시인들은 자신들의 의식주를 위하여 아무 걱정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며 생활을 하였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학육강식의 관념하에 어떻게 하면 더 편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케 하는 만큼, 인간들의 관념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아니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이란 이론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모든 계획이 실천이 된 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좋았더라고 하신 것처럼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면 안된다. “좋았더라”가 되어야 비로소 계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세졌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목적이 없는 계획은 쓸모 없는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목표만 있다고 해서 계획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계획은 목표(end)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means)이 있어야 한다. 수단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다음 단계 목표와 수단이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올바른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표는 거창한데 수단이 미약하거나 그와 반대현상이라면 계획뿐만 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와 수단의 연결을 위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개입되어야만 올바른 계획이 되는 것이다. 흔히들 이것을 엔드 민즈 체인(End-Means chain)이라고 한다. 이말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성(rationality)과 지식(knowledge)이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안될 때는 무의미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지식과 합리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계획이란 지식을 조직(organize)하여 행동으로 변형시키는, 행동과 지식의 중간단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목표는 명료히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나 수단은 인과관계를 갖게끔 미리 확인하여 한가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몇개씩 가지고 있어 그 계획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융통성(alternative)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와같은 계획의 내용이 앞으로의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에 적용되어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수립하여 실천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생활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7호 죄수—이기풍 목사(하)

이 사 례 편사

<고 이기풍 목사 막내딸>

어둡컴컴한 여수경찰서 취조실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가끔 이 방을 들락거리는 순사들의 옆구리에 찬 긴 칼은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덜컥거린다. 나는 가져온 아버지의 솜옷을 꼭 껴안은채 몸돌바를 물라 한쪽 구석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방에 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기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을 비을 일을 생각만 해도 두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른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또 닦으면서 아버지가 나오 나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의자에 가만히 앉아 보았다.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여수에서 통통거리고 세 시간이나 가는 적은 섬에서 일본 경찰의 온갖 박해를 받아가며 교회의 계단을 지키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할 때 다시 목이 메이기 시작했다.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마다 받은 우리 가정의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아침마다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부르던 찬송을 가만히 불러 보았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일것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두손을 모아 꼭 쥐고 마음속으로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면서 애타게 아버지를 기다리었다.

갑자기 아랫층에서 17호라고 부르는 우악스런 음성 이 귓전에서 울린다. 나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번호가 「17호」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방에 붙은 지하실 계단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의 시선이 계단 쪽으로 옮겨갔다. 아,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허리끈을 풀어헤친 바지를 오른손으로 쥐고 힘없이 쥘쥘거리며 올라오시지를 앓는가. 나는 “아버지—”하고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는 의외에 나타난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못하지고 내 볼을 비비며 눈물만 흘리었다. 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담쓰시며, “살려야 돼 이 꼴을 보려고 이곳까지 왔니?” 아버지의 볼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송장의 손같이 차갑고 강마른 아버지의 손목을 꼭 쥐고, 오른손으로 손수건을 꺼내어 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마구 닦아냈다. 나는 주어진 시간에 쫓기면서 즉시 아버지의 배를고 벗어낸 옷을 비껴내기 시작했다.

결례가 되다싶이 더러워진 무명솜바지저고리를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다가 감시하고 있는 순경에게 야단맞았다. 아버지의 손은 시체와 같이 싸늘해져 있었고 뼈와 가죽만 남은 처참해진 알몸둥이를 일싸안고 또다시 울음보가 터져버렸다. 나는 순천에서 가져온 깨끗한



◇ 이기풍 목사—생존시의 모습

지 주머니 내려갔다. 나는 한명생 동안 이때의 감개무량함을 잊을 수 없다. 감시하던 순경이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나를 쫓아낸다.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하늘나라에 주신 평화와 기쁨이 충만했다. 울고 있는 나의 머리를 쓰담쓰시며 “살려야, 어서 집에 돌아가라. 아버지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라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살려야, 집에 나가서 끝까지... 신사(神社)에 절하면 안된다.” 아버지의 노동자에는 광채가 났고 칙칙한 모습에는 이미 순교의 각오가 서제했다. 이때 아버지의 연세는 75세이었고, 나는 17세의 어린 나이였다. 내가 철들고 들은 이야기로는 순천노회 17명 검거사건 당시 구속당한 자와 면회한 사람은 단 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라면 아버지는, 너무 늙으신 반면 나 어린 철부지가 매일같이 경찰서 문앞에서 조르는 처량한 꼴을 보고 특히 미성년자라는 특혜(?)로 그 무시 무시한 취조실까지 들어가지 되었을 것이다.

1907년 아버지는 최초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7명 중 가장 연소(年少)하셨고, 장수(長壽)하셨기 때문에 이와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아버지는 끝내 여수경찰서에서 광주 형무소로 이철하기 전에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16명 목사들을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하시는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해 버린채 억지로 경찰서에서 끌어내어 버렸다. 불행히도 다시 형무소에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신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 쓸쓸한 우학리섬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1912년 6월 22일에 거행되었다. 이 장례식에 꼭 참석하고 싶은 목사님들은 모두 옥중에서 고생하고 계셨고 그반면 이장례식에 참석해야 할 줄 알면서도 형을 받고 있는 목사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을 두려워 못오며 목사님들이 많았다. 결국 평생을 아들같이 사랑하며 또 사랑 받아 오신 여수의 박재수 장로님이 이 쓸쓸한 장례식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장지에 까지 안장을 하여 주셨다. (*)

성경보다 몰몬경에 더 치중

윤 형 철 전도사

<충북부지도·충신연구원 3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일명 「몰몬교」(Mormonism)는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 종파이다. 이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하고, 자력구원설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큰 아들이며 그는 미(美) 대륙에 재림한다고 주장한다.

1. 창시자

몰몬교의 창시자는 요셉 스미스 2세(Joseph Smith Jr, 1805-1844)이다. 그는 생활의 불안정 속에서 신앙적 갈등과 회의를 느끼던 중 천사 「모로나이」의 지시로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에게 전하신바 온전한 복음이 적혀 있다”는 금판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스미스는 1827년 그 금판을 발굴하여 1830년에 완역하고 그 해 4월 6일에 6사람으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창립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에 몰몬교 선교부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2. 몰몬경

레이(Lehi)라는 유대인 선지자가 주전 약 600년에 「니파이」(Nephi)와 「라만」(Laman)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그의 온 식구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니파이의 후손과 라만의 후손이 주전 385년에 구모라(Cumorah)언덕에서 큰 전쟁을 벌였다. 그결과 니파이족속 가운데 단 1명이 생존했는데 그가 곧 「몰몬」이다. 몰몬은 애굽 상형문자로 이 족속의 역사를 기록한 금판들을 그곳에 묻었다. 그것을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가 죽었다가 천사로 변형하여 요셉 스미스 2세에게 나타나서 주었으며 스미스가 이것을 발굴하여 번역한 것이 바로 「몰몬경」(The Book of Mormon)이다.

몰몬경 서문에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라만 백성들에 대한 기록의 요약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잔유민인 라만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주의 계명과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쓰여 있다.

3. 계 시

몰몬교도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서」(Doctrine & Covenant), 「고가의 진주」(The Pearl of Great Price)에 그들의 권위의 궁극적 근거를 둔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것을 다 믿고, 그가 지금도 계시하시는 것을 다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을 장래에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성경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또 내가 더

기록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경을 통한 계시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태도며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것이다.

4. 신 관

성부·성자·성령은 일체(一體)이시며, 삼위(三位)이심도 불구하고 몰몬교도들은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을 각각의 개체로 본다. 즉 삼위일체를 인정치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성(靈性)도 부인한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사람의 모양과 키를 가지고 있다. 이 분들은 각각 유형한 몸과 무한히 순결하고 온전함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살과 뼈로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장한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어나기 이전 상태와 같이 영적 유아”였다고 한다. 성령은 “육체를 지니지 않았으나 영적 인격을 소유했다”고 본다.

5. 인간의 기원과 죄

몰몬교는 인간을 하나님이 낳은 영적인 자녀로 보며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개개의 실체를 가진 영적 실체로서 존재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말함으로써 죄와 타락을 실제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

6. 속 죄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난과 그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몰몬교는 말하지만 이 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문은 열렸으나 복음에 요구된 율법과 규례들을 각자가 원해서 순종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기는 했으나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7. 말세론

몰몬교 신앙개조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미국)에 시온이 건설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은 미(美)대륙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미대륙에 전립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한다. (*)

높이 올라 외치는 청년이 되자

윤 봉 준 집사

<청년부 편위원회>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높은 곳에 올라 외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겠다. 박영훈이 지봉을 뿔어나가다 더 높은 나무를 만나면 감아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복주시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7, 28)고 놀라운 축복을 부여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24시간과 낮의 따사로운 햇빛과 맑은 공기, 일용할 양식과 물과 의복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잊어버리고 자주 넘어지며 때로는 원망도 한다. 기쁘거나 즐거울 땐 교만해지며 그것이 마치 나의 재능과 지식 때문인양 우쭐대기 잘 하는 우둔한 우리들이기도 하다. 때로는 몸은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세상의 향락을 좇고 몸은 열심히 천국을 모방하고 있으나 마음은 세상의 소리로 향하는 청개구리나 자벌레 같은 이중성 때문에 고민한 적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더우기 청년기의 함정은 정욕과 물질욕과 명예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젊음만 내세우다가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한 일도 많다.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물에 빠질 때에, 눈을 내면으로만 향하다가 좌절하는 일등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한눈을 팔 때마다 반복되는 교훈이 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가 없다. 벌레보다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진정 살리시기 위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높은 곳에 올라 외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겠다. 박영훈이 지봉을 뿔어나가다가 더 높은 나무를 만나면 감아올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어려운 시험, 무거운 짐을 만나거나 사경에 처했을 때에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야겠다. 우리 청년들은 철저히 의지하고 매달리는 신앙의 기쁨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본다.

나아가서 그의 명령은 순종해야겠다. 잘 아는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라(마 28:19, 20)”에 순종하는 일이다. 사실 이렇게 명령하심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을 아버지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의 뜻을 이룸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함이다.

젊음이 다하기 전에 주어진 환경과 처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되 혹은 주의 종으로 혹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때에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하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면, 외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혹자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만 경제적 문제로 혹은 연령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신이 적절 나치지 못할지라도 후방에서 형제를 키워보겠다는 꿈을 가진 자도 없지 않다. 아 물론 이제는 청년들이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첫만 먹는 유아기를 벗어나서 성년기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소망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할 때 임을 절감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구령사업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후세에게 믿음과 복을 물려주며 천국일꾼을 키워 어둠에서 허덕이는 이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화복하고 평화로워 주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세대를 이룩해야겠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때(사 2:4)가 분명히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하며 나아가 승리의 주를 선포하는 능력있는 실력자로서 성령충만한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 (*)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일시/1977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4박 5일)

장소/충현교회당

대상/경기·강원·충남 지구 교역자 70여명

1977년 5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
.....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
.....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
.....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쯤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
.....도 우리는 이와같은 캠페인을 벌입.....
.....니다. 「월간 흥현」 편집실.....

찰스 피니 저
박 광 철 역

성결의 비밀

생명의 말씀사 발행
4·6판, 130면, 340원

자기의 천부적인 힘을 아무리 잘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이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성결함에 이르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찰스 피니는 말한다. 그는 법학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뒤부터 진도자의 사명을 다 하기까지 실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시키고 항상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였던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행위로 은혜를 받을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위는 예수께 가는 길이 아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길이다. 온전한 성결함을 얻기에 갈급해 있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신앙고백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빨리 고백을 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육에 속한 자보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찰스 피니는 이책에서 잘 피력해 주고 있다. 옛 사람은 마음의 보좌를 떠나 십자가에 속속들이 못박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부활하시어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 하며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온전한 성결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안영자 기자〉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4월에 구입한 책

-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중생의 원리/기독교서회
교육연구소
-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기독교서회
교육연구소
- 성서공동연구의 이론과 실제/김영운/한국성서연구회
- 미스터 펜만의 일생/빈언 존/대한기독교출판사
- 성서고고학(구)/원용국/성광문화사
- 성서고고학(신)/원용국/성광문화사
- 성막과 십계명/원용국/성광문화사
- 종교개혁사/홍치로/성광문화사
- 내게 구하라/바운즈 E.M./새순출판사
- 왜 우리는 기독교를/박아론/세종문화사
- 마르틴 루터/남정길/대한기독교출판사
- 교역자 부인의 역할/테트 윌리스/기독교서회
- 의자차의 사도/스기하라 고로/성광문화사
- 능력 있는 기도/라이스 존스/생명의말씀사
- 성경공부의 비결/파하이팀/보이스사
- 완전한 성령/굿즈기 맬포드/보이스사

□ 간직하고 있는 책

- 기독교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대한기독교서회
- 세계명저대사전 6권/세계명저편찬위원회/대원각
- 일람표대사전/이성호/혜문사
- 세계문학전집/정음사 편집부/정음사
- 신약성서강해/이성호/월백사
- 음악대사전/음악대사전편찬위원회/신진출판사
- 구약성서강해/米田豊/월백사
- 1,000 예화사전/이성호/혜문사
- 영한사전/김광주/어문각
- 신앙난제대사전/이성호/혜문사
- 1,000 설교사전/이성호/혜문사
- 최신 인명·지명사전/김남식/한국목음문서연구회
- 그리스도교대사전/그리스도교대사전편찬위원회/대한기독교서회
- 성구대사전/이성호/혜문사
- 매일의 묵상(2권)/강태국/일일사
- 일일성경/앤리·포드햄/생명의말씀사
- 누가복음/박안련/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 태위강해/조세광/크리스찬헤탈드사
- 소선지서강해/조세광/크리스찬헤탈드사
- 열왕기서강해/조세광/크리스찬헤탈드사
- 성서사전/류형기/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
- 창세기강해/조세광/크리스찬헤탈드사
- 욥기강해/조세광/크리스찬헤탈드사
- 신약신학/박창목/성학사
- 교부들의 신앙/제임스 카디본/경향잡지사
- 표준경주석/박안련/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구역소식

축하합니다(4월 중 결혼)

- 우종구/우성원 장로 3남-11일 충현교회
- 김옥희/계명선 집사 딸-12일 충현교회
- 이승재·이문표-12일 충현교회
- 양효순/태능구역-16일 행복예식장
- 김경애/상도구역-16일 신봉예식장
- 김동욱/조정원 권할 딸-20일 영빈관
- 한보경/오복선 집사 아들-22일 로얄호텔
- 김성욱/김영개 집사·임순철 집사 아들-23일 영빈관
- 배금희/제일성가대원-23일 기독교대화관
- 남명희·성지연-21일 충현교회
- 김경우/한순선 집사 아들-26일 세종호텔
- 노문환·장정화/27일 충현교회
- 박인관/박홍오 집사 아들-27일 고려예식장
- 남양희/남상철 집사·정봉조 권사 2녀-28일 충현교회
- 박용세/박덕세씨 동생-30일 신라예식장

위로드립니다(4월 중 별세)

- 임학래/박선자 권사 부군-4월 초
- 배상순/담심리구역-5일
- 홍명기/동대문구역-5일
- 명순덕 집사/김원구씨 부인-11일
- 김이순/왕십리구역-18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 6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입니다. 총동원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성전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장소문제가 원만치 못하여 주일학교 교육은 물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성전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 인도네시아 국내의 불안한 정치사정으로 선교사의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를 위하여 힘써 기도합시다.
- 혼잡한 국제도시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증심하고 활발한 선교사업들을 펴고 있는 홍종만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중동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떠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아랍어의 습득과 장기정착 등 여러가지 준비로 애쓰고 있는 이연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서독의 육호기 선교사와 박용삼 평신도선교사는 지난 4월 순회전도집회에서 성과를 거두고 지금은 한인교회를 개척중에 있습니다. 위해 기도합시다.
- 일본의 유명세 평신도선교사, 아르헨티나의 신동수 평신도선교사를 위하여도 매일 기도합시다.

구역장 노트①⑥

신앙지도의 지침(8)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③ 친척을 돌보는 일(딤후 5:8-16)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이웃 사랑에서 향기와 열매를 보도록 도덕적인 면에서 책임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독교가 도덕을 숭상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터전에서 도덕적인 꽃을 피우는 도덕적인 종교다. 이런 뜻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요 19:26,27).

⑦ 직제가족 이외의 식구들과 친척들에 대한 책임 한계

직제가족 이외에도 많은 식구들이 있고 가깝고 먼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의 생활현황을 자주 살펴 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부도덕한 일들이 있고 법률상 용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그사건 자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인정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범하는 그릇된 일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는 일은 극히 한정된 것이기에 되도록이면 친척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불화와 같은 일은 법에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기 전에 친척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불신 친척을 돌보는 일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1. 불신 친척들에게 신앙의 지조와 약속 이행으로 평소 신임을 얻어야 한다.

2. 경조간 내왕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것은 신임을 얻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④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딤후 3:4, 5; 딤후 2:4-8)

② 그리스도인 가정의 영원한 표어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는 말씀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에 기초한 사랑의 질서임을 늘 강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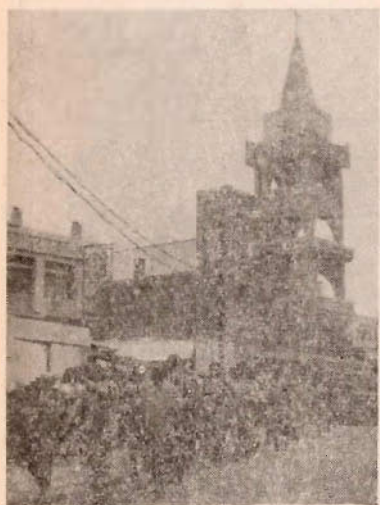
④ 가정의 신성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가정의 질서가 잘 잡히게 된다(엡 5:22-25)

1. 죄악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되는 것을 알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여야 한다.

(다음호 계속)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총동원전도의 달 맞아 6월 19일 총동원전도—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을 총동원전도의 달로 전하고 교회「총동원 전도운동」을 실시해왔다. 올해도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석주 장로)가 주관하여 온 교회적으로 전도운동을 실시하게 되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주님의 복음전파에 교회 전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6월중 한 주일을「총동원전도의 날」로 정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올해의 총동원전도운동을 위하여 지난 5월 초에 발표한 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동원전도 실시일: 1977년 6월 19일(세례주일) 3부예배 후 ◇각지회 및 주교 각부 별도 전도실시 대상지: 영아·유치부/중부시립병원, 새신자·유년·초등부/남부시립병원, 중·고등부/경생원, 대학부/수도 국군통합병원, 청년부/각심학원, 제일성가대, 제이성가대/불광동 소년원, 여성성가대/소년원분원, 남전도회/원호병원, 여전도회/서울구치소

또한 이를 위하여 각 조별로 인솔책임 장로 1명, 담당교역자 1명씩 따르게 되며 미전도자를 위한 예산은 전도위원회에서 부담하나 각 조별 세부계획은 각 조별로 세우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5일 3부 예배 후에는 전도위원회실에서 이날의 행사를 위한 실무자회의가 열릴 예정

이라고 하는데 총현교회 성도는 누구나 이날의 전도대회에 참여하여 줄 것을 전도위원회는 부탁하고 있다.

모범 어린이 교사 학부모 표창

—어버이주일 행사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

5월 1일 어린이주일과 5월 8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하였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는 주교 1부 각부가 어린이 설교를 실시하였고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5월 8일 어버이주일에는 붉은 카베이션 꽃을 학생들이 어버이와 교사들의 가슴에 달아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위원회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28명의 모범 어린이, 교사, 학부모에 대하여는 5월 15일 낮·저녁 모범 메달과 함께 부상을 주어 표창하였다.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모범 어린이—김은경(영아) 박혜준(유치) 이경은(유치) 정용국(유년) 황태연(유년) 김선영(유년) 이원희(유년) 임승목(초등) 도덕수(초등) 박선임(초등) 박혜성(초등).

● 모범교사—신영권(새신자) 문광석(새신자) 김용순(영아) 최수경(영아) 김정자(유치) 윤정미(유년) 최하자(유년) 송영섭(초등) 최길자(초등) 김양태(중등) 김정화(중등) 고재원(고등) 구경숙(장년) 홍원선(노년) 강모용(노년)

● 모범 학부모—이계문(영아) 이성분(유치)

심령부흥회 은혜중 마쳐

—15일(주일)에는 특별 건축헌금—

지난 5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매일저녁 본당에서 열린 심령부흥회가 일평균 1,00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은혜중에 마쳐졌다. 정석홍 목사(시내 신현교회 시무)가 강사로 초빙되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은혜 받는 비결」요 2:1-11 「하나님의 새가지 질문」창 3:9-12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유」욥 1:1-22 「충성의 다섯가지 원칙」마 25:14-30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같은 심령부흥회가 끝난 다음 주일을 맞는 15일에는 총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성전건축을 위한 특별 성전 건축헌금을 드리었다. 총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헌금을 위하여 최단 1년, 최장 3년의 정기적금으로 매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이 한 것은 주일학교의 어린이까지라도 새 성전건축헌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3년만기 10,000원 월부금액이 237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신혼 부부를 위한 교육

—신앙적인 가정생활 위해

성경 학원에서 실시—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이 오는 5월 23일(월) 저녁 7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실시된다.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이상적인 가정과 행복한 생활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이 교육에는 강선명 박사, 김재창 목사(총현교회 부목), 정소영 전도사(총현주교 영아부 지도)등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참가 범위 및 방법을 보면 결혼한지 2년 미만의 신혼부부, 약혼 중에 있는 남녀 등으로 되어 있다.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오는 6월 20일부터, 70여 명의 교역자 초청—

성경학원이 실시하는 농어촌 교역자를 위한 제 3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이 오는 6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교회에서 또 다시 열리게 된다. 도시와 격리된 농어촌의 벽지에서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목회하는 농어촌교회 교역자를 초청하여 목회에 필요한 힘을 얻고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해마다 실시해온 이 훈련은 지난 1975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의 70여개 교회에서 70여명의 일선 교역자가 초청되어 훈련을 받게 될 이번 훈련은 초청자를 위하여 숙식비 및 왕복 교통비를 우리 교회에서 모두 부담한다고 하며 오는 5월 25일까지 일단 훈련신청이 마감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훈련 교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교회장의 비결/전도 의의와 방법/장로교단 무엇인가?/성경 교수원리/제사장론/집회보 목사 청지기론/현대신학의 동향/농어촌교회의 발전책/교회행정.

교회 성경암송대회 성료

—어린이 청장년 관심 높고, 27명이 야고보서 전장 암송—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한 세번째 교회 성경 암송대회가 지난 4월 24일 교회 각 부속건물에서 실시되었다. 야고보서 전장(1장~5장)을 범위로 하여 실시된 이번 성경암송대회에는 모두 120명이 참가하여(영아—6명, 유치—22명, 유년—21명, 초등—15명, 중등—5명, 고등—3명, 산전부—4명, 대학—2명, 청장년—35명, 노년—7명) 힘써 준비 해온 것을 서로 겨루었는데 전장 암송자는 모두 27명이었다. 전장암송자중 최고령자는 72세된 노년부의 홍찬옥씨였고 최연소자는 18세된 산전전도 교육부의 이형숙이었다.

당회장 해외여행 예정

—세계선교 사업과 부흥회 인도 위해—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오는 6월 초순경부터 9월 중순까지 약 3개월 간의 계획으로 해외여행길에 오를 예정이다. 안식년을 맞아 휴무기간을 이용하여 떠나게 될 이번 여행은 서독 등 8개국을 방문한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 5. 1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계
예	주 일	181	340	521	예	주 일	113,240
	나	391	998	1,389		이	239,570
	삼	337	602	939		삼	189,620
	일	72	182	254		일	46,200
배	주 일	189	360	549	배	주 일	3,104,536
	나	131	362	493		이	544,400
	삼					삼	235,595
	일					일	24,000
주	새 신 자	20	28	48	주	새 신 자	86,000
	이	19	41	60		이	224,120
	부	63	64	127		부	116,000
	부	48	101	149		부	10,000
일	유	155	146	301	일	유	6,280
	초	145	166	311		초	2,015
	등	186	148	334		등	15,765
	부	154	164	318		부	25,040
학	대	62	69	131	학	대	20,606
	청	62	67	129		청	20,905
	장	25	245	270		장	31,701
	노	25	59	84		노	44,695
교	산	5	22	27	교	산	
	업					업	
계		2,270	4,164	6,434	계		5,100,288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	습	원	일
2,601	2,345/3,525	1,359/2,515	304/237	224/334	458/539		

토막소식

-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초기부터 헌신해 온 이명달 공로전도사가 1년 예정으로 5월 5일 미국으로 떠났다.
-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5월 12일 제 3사단 예배당 신축기공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하셨다.
- *...남전도회는 5월 8일 김영혁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에큐메니칼신교신학의 동향과 그 비판」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열었다.
- *...김영삼 집사의 장로 장립식이 5월 17일(화) 저녁 본당에서 열렸다.
- *...새신자부(장년)는 6월 17일 교사 기도회를 열고 전반기 학습평가도 가질 예정이다.
- *...유치부는 6월 26일 유치부실에서 성경이야기 대회를 연다.
- *...유년부는 6월 26일 자체사무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 *...초등부 어린이회 총회가 6월 5일 유년부실에서 열린다.
- *...중등부는 6월 6일 청계산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지며 아울러 하기수양회 준비를 위한 교사수련도 결한다고 한다.
- *...중등부 먼러회 후반기 총회가 6월 19일 중등부실에서 열린다.
- *...고등부는 6월 6일 실시되는 총신대 성가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중이다.
- *...중등부는 6월 5일 고등부실에서 특강을 여는데 제목은 「한국주교회의의 선교」이다.
- *...고등부 먼러회 총회가 5월 15일 열렸는데 신입원들에 대한 수련회를 6월 23일, 24일 가진다.
- *...산전전도 교육부는 6월 12일 십계명 암송대회를 새신자부실에서 연다. 또 6월 26일에는 독서 발표회도 연다.
- *...대학부 향우음악회가 6월 4일 본당에서 열리며 지난 5월 15일에는 대학부실에서 선교집회 지음을 가졌다.
- *...청년부는 6월 19일 청년부실에서 설교발표회를 가지며 5월 7일 경로회를 주관하였다.
- *...장년부는 6월 12일 축호전도를 교회주변에서 실시한다.
- *...노년부는 6월 11일 반별친교회를 가진다.

*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충청교회 성도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우리 충청교회를 사랑하시사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일입니다.

매 주일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이 아무리 여러 차례 나누어 예배를 드리어도 지금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는 구름떼와 같이 물려드는 성도들로 큰 혼잡을 피할 수 없으며 각 지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같은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그것은 오래전 강남구 논현동에 새로 넓고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속히 예비된 이 대지 위에 새 성전을 건축하여 지금과같은 여러가지 불편을 해결지어야 하겠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으려는 새 성전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을 받아 누리고 번영하는 터전으로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귀하고 중대한 일을 위하여 충청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며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정성어린 헌납이 요청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할 수 없었던 옛 성도들 같이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부르시는 은혜로운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 건축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을 길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7년 5월 15일

당회장 김 창 인

***** 성전건축 헌금 계획 *****

헌금 목표액15억원
헌금 작성일1977년 5월 15일
헌금 완납일1980년 7월 30일
헌금방법
· 일시납입(한번에 헌금으로)
· 분납(3년간에 걸쳐)
· 적금(적금하는 방법)
헌금납부장소본교회 사무실

***** 생각하며, 기도하며, 힘쓰며 *****

충천의 성도라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꼭 같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 성전건축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성전건축을 위해 가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 성전건축을 위해 자지회나 또는 교회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정기적금월부금표

월부액 헌금액	1년	1년반	2년	2년반	3년
100,000,000	7,940,000	5,160,000	3,770,000	2,930,000	2,370,000
90,000,000	7,146,000	4,644,000	3,393,000	2,637,000	2,133,000
80,000,000	6,352,000	4,128,000	3,016,000	2,344,000	1,896,000
70,000,000	5,558,000	3,612,000	2,639,000	2,051,000	1,659,000
60,000,000	4,764,000	3,096,000	2,262,000	1,758,000	1,422,000
50,000,000	3,970,000	2,580,000	1,885,000	1,465,000	1,185,000
40,000,000	3,176,000	2,064,000	1,508,000	1,172,000	948,000
30,000,000	2,382,000	1,548,000	1,131,000	879,000	711,000
20,000,000	1,588,000	1,032,000	754,000	586,000	474,000
10,000,000	794,000	516,000	377,000	293,000	237,000
9,000,000	714,600	464,400	339,300	263,700	213,300
8,000,000	635,200	412,800	301,600	234,400	189,600
7,000,000	555,800	361,200	263,900	205,100	165,900
6,000,000	476,400	309,600	226,200	175,800	142,200
5,000,000	397,000	258,000	188,500	146,500	118,500
4,000,000	317,600	206,400	150,800	117,200	94,800
3,000,000	238,200	154,800	113,100	87,900	71,100
2,000,000	158,800	103,200	75,400	58,600	47,400
1,000,000	79,400	51,600	37,700	29,300	23,700
900,000	71,460	46,440	33,930	26,370	21,330
800,000	63,520	41,280	30,160	23,440	18,960
700,000	55,580	36,120	26,390	20,510	16,590
600,000	47,640	30,960	22,620	17,580	14,220
500,000	39,700	25,800	18,850	14,650	11,850
400,000	31,760	20,640	15,080	11,720	9,480
300,000	23,820	15,480	11,310	8,790	7,110
200,000	15,880	10,320	7,540	5,860	4,740
100,000	7,940	5,160	3,770	2,930	2,370
90,000	7,146	4,644	3,393	2,637	2,133
80,000	6,352	4,128	3,016	2,344	1,896
70,000	5,558	3,612	2,639	2,051	1,659
60,000	4,764	3,096	2,262	1,758	1,422
50,000	3,970	2,580	1,885	1,465	1,185
40,000	3,176	2,064	1,508	1,172	948
30,000	2,382	1,548	1,131	879	711
20,000	1,588	1,032	754	586	474
10,000	794	516	377	293	237

이달에는 지난 4월부터 새로 부임하신 교역 네 분을 만나 보고 간단하게 네 분을 소개한다.

<편집부>

새로운 충성을 다짐하며

이 성 근 목사

월선 친근감이 들어

사모님(임영애 여사)이 중·고등부를 중현교회에서 마치고 또한 주교교사로 봉사하던 교회이기에 무척 친근감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이성근 목사님은 1968년 12월에 중회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약수제일교회, 부산의 남부민중앙교회를 시무하시다가 우리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부산시의 동삼중앙교회에서 시무하셨다.

목회 방면의 각종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계시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 신설된 출판위원회위원을 맡아 보시고 새신자부(장년)의 지도교역자로 수고하시게 된다.

솔하에 2남 1녀를 두셨고 중구 필동에 사택을 마련하셨다.

1937년 출생했고 교향은 평북이다.



김 하 진 목사

학생 청년지도에 많은 경험

새로 부임하시어 제 5지구의 심방과 성경학원에서 강의를 주로 받으실 김하진 목사님은 1941년 출생, 평북 출신이시다.

1969년에 중회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1972년에 군목으로 입대, 1974년 11월에 육군대위로 제대했다. 제대하신 이후 장흥교회에서 시작하시어 청년부, 대학부, 여성성가대를 맡으시어 수고하셨다. 또한 잠시동안 신일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향토예비군의 항목을 역임하시기도 하며 학생, 청년지도에 많은 힘을 쓰시기도 했다.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온정성을 다해 교회를 맡겠습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현재 국민학교 2학년인 맏아들을 위로 아들만 3형제를 두셨다. 중구 필동 2가 90-3호에 사신다.



김 용 선 전도사

최선다해 충성할 터

교회가 너무 커서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너무나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기에 무척 좋다고 말씀하시는 김용선전도사님은 구역제 1지구의 심방을 주로 맡으시어 각 가정을 심방하시게 된다. 1972년에 신학대학(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청량리 제일교회에서 시무하시기도 하신 전도사님은 강행도가 교향이시고 1941년생이시다.

온가족이 삼양장로교회에 나가시고 부모님과 동생이 성북구 공릉동에 살고 계신다.

앞으로 중현교회에서 맡게 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릴 것을 다짐하시는 전도사님은 중구 충무로 5가 36에 사신다.



김 순 애 전도사

감사한 마음 앞서

산업선교의 일선에서 직접 1년 8개월여 수고와 연단을 하신 김순애 전도사님은 이제 산업전도부의 부지도로 수고하시게 되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또한 감사도 많이 했다」고 말하며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는 김전도사님은 미진상역주식회사(수출품 보세가공)에서 직접 직업청소녀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전도를 했다. 이제 전에 섬기던 중현교회에 와서 다시 더 큰 책임을 지고 일하게 되니까 무척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김전도사님은 73년도에도 우리 교회 청년부의 전도부장으로, 중등부의 교사로 많은 일을 하시기도 했다. 인천구교회에 장로님이셨던 아버지(별세)와 어머니, 동생들은 인천에 사신다. 경북이 교향이시며 1975년에 칼빈신학교를 졸업하셨다.



편집하고 나서

기자식

*...건축을 위한 「적금표」가 배부되었다. 장년부터 유치부 꼬마에 이르기까지 성전건축을 위한 현금 작정을 실시했다. 목표액은 15억원이고 기간은 80년 7월 30일까지라고 했다. 최소한 각자가 자기 재산의 10분의 1만 바친다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고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혹자는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너무하다고 한다고 한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모든 답답한 소리들을 잠시 덮어두고 생각해 보자. 「주님제시매 내가 있음」을 생각해 보자. 「주님 주시매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로 함께 설길 수 없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택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는 만사 오우케이(O.K.)다. 왜? 내집을 짓기 위해 내가 나의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만을 바칠 것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건축헌금문제는 간단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로 인해 받을 축복을 믿음 안에서 기막히게 상상하는 일만 남았다.

<형>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주께 붙어 있는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은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고 난 후에는 눈물에 얼룩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생활에서 만약 택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죄를 알지 못했더라면, 하고 안도의 숨을 쉬곤 한다. 우리 앞에 닥쳐진 큰 사업, 성전건축,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겐 지나는 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안에서 모인 총회에 식구들만은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성전부터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과 비장한 작로를 갖게 한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자세부터 준비해야겠다. 마음에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에 열매는 속히 맺어질 것이다.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온 성도들에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총회의 모든 식구들이여! 적극 참여하고 끊임없이 간구하여 은혜에 빛진자가 되자고 성전건축을 통하여 자기에 모든것으로 갚는자가 되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로 삼자.

<영>

*...우리네들은 실수를 망각하는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듯 하다. 그러나 인간들의 실수는 자신을 너무 믿고 조심할 하지 않는에서 비롯된다. 이성을 잃고 현실에 방황하는 가운데 자신을 망각하여 생(生)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하기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적이 있는데”라는 속담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바람직 하지 않을런지.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기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신의 위치와 겸은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설 땅이 어디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을때 비로써 남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순간 순간만을 넘기려는 알박한 생활태도를 청산하고 시야를 넓혀 미래를 바라보는 삶속에 참보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네들은 늘 망각의 상태에서 생활하기에 그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주님만은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네들에게는 필수적인듯 싶다.

<제>

*...5월은 푸르다. 산천도, 마음도, 다 푸르다. 5월 하늘은 점점 높아만 가는데 효(孝)는 점점 퇴색되어만 간다. 그러나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 우울해질 때가 있다. 가장 흔치 볼 수 있는 35원짜리 버스에서 조차 의면당하는 우리 부모들. 바로 내 부모가 만원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젊은이의 눈총을 받는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눈은 어떠한 눈조리로 그를 바라볼 것인가? 또한 물 한그릇까지도 선하게 보시는 주님은 어떠한 얼굴로 바라보실 것인가? 젊은 애에 우리는 빛을 주듯 빛을 갖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겠다.

<지>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선교회」가 조직됐다. 물론 북한선교를 위한 이야기가 오늘날에만 이야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방법이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교회 설립을 위한 15년의 역원이 구체화의 첫 단계로 15억원의 목표로 건축헌금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외선교에도 점차 밝은 소식들이 오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뿌린 믿음의 정성의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 하나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닐까. 이제 우리 하나의 문턱에 들어섰다.

할 일은 이제부터다. 단단한 각오와 결심으로 닦쳐오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맞아라 할 것이다.

*...지난 해에 성령론, 청지기론등을 써 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셨던 정상우목사님께서 이달부터 「작본론」을 써 주시게 됐다. 각자의 올바른 위치와 자세를 알고 봉사할 때 우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형수>

표지설명

『애에 사람들이 예수와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3, 14절

때때로 어른들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었음을 잊을 때가 있다.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그리워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연약함과 순박함을 나무랄 때가 있다. 무지한 말과 행동으로 말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천국이 바로 그들과 같은 자의 것임을 잊지 말자.

월간「총현」5월호 통권 제41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 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5월 22일 발행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작정을 앞두고 열린 심령부흥회 기간 중 성도들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민족과 국가를 위해 힘써 기도하였다 (왼편은 감사 정석홍 목사)



북한 선교회 (이사장 : 김창민 목사)가 지난 4월 30일 발족되어 본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입하였다. 초교파적으로 조직된 북한 선교회는 씨앗선교회의 후신이기도 하다.



수어린이주일로 지킨 5월 1일 예배후에는 영아부와 유치부의 귀여운 어린이들 모두가 목사님들의 특별 축복기도를 받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받으며 기뻐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야고보서 암송대회에는 영아부 어린이로부터 노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120명의 교우들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는데 전장 암송자가 27명에 이르렀다.



우리교회 명예전도사인 이명달 전도사가 미국에 1년간 체류를 위해 5월 5일 출국하였다. 본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일해 온 이 전도사와 잠시라도 헤어지는게 서운해 하는 여러 교우들이 김포까지 나가 환송하였다.

실로엄
못가에서



사는 대로 배우는 어린이

도로디 로오 노울테

비평이나 하고 사는 어린이는 판단을 배우고
 적개심을 품고 사는 어린이는 싸움을 배우고
 조소나 하고 사는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수치감에 쌓여 사는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우며
 관용하며 사는 어린이는 참을성을 배우며
 격려하고 사는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며
 찬양하며 사는 어린이는 감사를 배우며
 공평으로 사는 어린이는 정의를 배우며
 안정감 속에 사는 어린이는 믿음을 배우며
 시인하며 사는 어린이는 자기애(愛)를 배우며
 순응하며 우애하고 사는 어린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을 줄 안다.

□월간총현 5월호